

을 수능, EBS 교재 70% 출제 어떻게

유형·지문 활용... 베껴내진 않는다

안방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EBS 수능강의 교재에서 70% 또는 그 이상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힌 뒤 연계 방법과 연계율 의미를 놓고 혼란이 일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안 장관은 25일 "70%는 직접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처럼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해 수험생이 직접 연계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과거에는 '심하게 꼬거나 비틀어' 적중률이 높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연계하나=교과부는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개념, 원리 활용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 표 등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및 문항의 변형(축소, 확대, 결합, 수정)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교재에서 화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을 토대로 수능시험에 여러 가지 화산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을 낼 수 있고, 선거의 기본 원칙을 소개했다면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선거 원칙을 찾는 문항도 있을 수 있다.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나 자료를 써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 경기변동 자료에서 물가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EBS 교재에 나

왔다면 이 자료를 보여주고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살짝 비틀어 내는 식이다.

글의 제재나 논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해 해의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 이로온 점을 찾는 문항을 기업결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으로 바꿀 수 있다.

외국어(영어)도 같은 지문을 쓰면서 EBS에 주제를 묻는 문항이 나왔다면 그 이외의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같은 주제를 다른 지문을 통해 물어볼 수도 있다.

◇나머지 30%는 사교육 영향은= 안 장관은 "70%를 EBS와 연계하면 나머지 30%는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100%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70%는 EBS를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 대체 수단이지 공교육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EBS를 통해 보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현장에서는 "나머지 30%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 EBS 교재를 이용한 속성반, 단기반 등도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시험 연계 대상인 115권의 EBS 교재 가운데 수험생마다 30권 안 장권은 "70%를 EBS와 연계하면 나머지 30%는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



조선포 홍보도우미 선발 최근 조선포대학교 서석출에서 열린 '조선포 홍보도우미' 선발대회에 참가한 지원자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 영재 선발장 가보니

"좋아하는 색깔 피아노로 쳐 보세요"

38명 선발 1년간 유명교수들에 무료 수업

광주시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이 25일 2010학년도 음악, 미술, 무용 분야의 중학교 영재학생 38명(음악 15명, 미술 16명, 무용 7명)을 최종 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 걸맞는 예술 인재양성을 위해 예술영재 선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영재학생들은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아 1·2차 실기 시험을 통과했으며,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올 1년동안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유명 대학 교수들로부터 무료로 수업을 받게 된다. 영재학생들의 최종 선발과정을 들여다 봤다.

최종 2차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20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장.

미술영재 선발 실기시험에 참여한 30여명의 학생들은 시험문제가

나오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시험문제는 모나리자 초상화의 패러디와 20년 후의 미래 교실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의 이미지와 연계해 삭발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그리는가 하면, 편안한 미소를 강조해 자주는 김밥집 아주머니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음악영재를 선발하는 또 다른 교실에선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이 에스더(42) 교수가 조별로 모인 4명의 중학생을 상대로 영재 창의성 테스트를 했다.

이 교수는 두 마디의 멜로디를 학생들에게 먼저 들려주고 뒷부분을 창작해 작곡하는 형식과 좋아하는 색깔을 묻는 다음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했다. 무용실기 시험에선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가 주어졌으며, 11명의 학생은 'TOTAL ECLIPSE 중 15분' 음악에 맞춰 현대무용과 발

레 등을 창작해 선보였다.

예술영재를 선발하는 만큼 각 과목당 전국에서 추천받은 교수진 5명씩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도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단순히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영재를 발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이 때문이다.

미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불대학교 회화학과 이강일(53) 교수는 "그동안 똑같은 틀에 맞춰진 입시화된 형태의 그림만 봤는데, 역시 영재들의 그림은 신선함 충격이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유육진 관장은 "올해 말에는 문화부문의 영재도 뽑고, 영재교육 시설도 확장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외국체험학습 등을 통해 국제 감각을 갖춘 영재들을 키워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학년도 예술 영재선발 시험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최현배기자 lucky@

전남대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인재센터

광융합 전문인력 2500명 양성

전남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전남대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인재양성센터(센터장 문종하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하 광센터)는 2013년까지 28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광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2천500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광센터는 매년 정부로부터 5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지역우수 인재 양성 및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신소재공학부·전자컴퓨터공학부·전기공학과·정밀화학전공·광전자화학소재전공·물리학과·화학과 등 광 관련 7개 학과(전공)에서 교수 104명과 학생 1천69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원·광소재 분야 및 단위 광소재 제조 분야·모

듈 패키지 분야·시스템 분야 등 4개 특화분야에 매년 전문·연구인력 500명 이상(숫자 확인)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에 대한 취업률을 각각 66%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센터는 ▲맞춤형인재양성 기틀 구축 ▲산학연 교류협력 체계 강화 ▲기업기반 창의적 교육시스템 운영사업 등 크게 3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광센터는 또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1~2일 '선도산업 학술경진대회 및 선도산업 아이디어·작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산학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한 신소재공학부 등 7개 학과 학생들이 광센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조선포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인재센터

현장형 인재육성 메카 발돋움

조선포 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ECO-MECA Center·센터장 차용훈)가 지역사회의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형 인재육성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재양성센터는 '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분야 그린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참여기업,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배출에 힘쓰고 있다.

센터는 우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호남광역권내 지자체(광주시·전남·북), 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을 비롯한 유관 연구소

기술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재양성센터는 미취업 졸업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형 인재육성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 및 선도산업 분야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인력의 기술 능력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장인력·취업예정인력 양성 교육이 연계된 신개념 현장



미취업 졸업생들이 인재양성센터의 취업역량강화 특강을 듣고 있다.

호남대 평생교육원 미취업 대졸자 콘텐츠 개발 교육

호남대 평생교육원(원장 차준섭)은 광주·전남 지역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전액 무료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및 창업 알선에 나선다.

총 사업비 1억3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기반 콘텐츠 개발자 양성 과정은, 광주지역 미취업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30명을 선발해 오는 4월22일부터 올 11월 말까지 기본소양교육, 전문기술교육,

기업현장 연수, 취업·창업 등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확산으로 취업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로 평가 받고 있다.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교육을 위한 접수기간은 4월21일까지이며, 문의는 평생교육원(062-380-8585).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원예

- 총 120석 (연식, 전식, 가족모임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모임) : 10인석, 12인석, 14인석, 16인석, 18인석, 20인석
- 대모임(모임) : 20인석, 24인석, 28인석, 32인석, 36인석, 40인석

(이외에도 다양한 크기의 모임을 위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62)671-1199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2-10번길 11

고급 요리 전문 레스토랑

山水土風

정통 한국 요리

최고급 3상복리 특화까지 먹는 도록 건강 음식

1. 고급 요리 전문 레스토랑

2. 정통 한국 요리

3. 최고급 3상복리 특화까지 먹는 도록 건강 음식

4. 고급 요리 전문 레스토랑

5. 정통 한국 요리

6. 최고급 3상복리 특화까지 먹는 도록 건강 음식

062) 434-0001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2-10번길 11